

## 발 간 사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마무리하고 2006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양묘협회 제33호 회지발간에 즈음하여 모든 임업인과 더불어 양묘가족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임업계에는 모처럼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의 개발도 많았지만 또한 어려움도 함께 교차한 분주하고 바쁜 한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임업 실무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연환 산림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넓은 산지를 국민의 소득원으로 가꾸기 위한 적극적인 산림자원화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 자랑거리인 우거진 숲을 숲답게 가꾸기 위한 기본기술을 정립시켰고 국유림에서 사유림까지 숲 가꾸기 작업을 확대추진 하였는가 하면 벌기령에 달한 리기다소나무의 합리적인 수종갱신 작업기술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수종갱신 추진계획을 수립 하는 등 산지자원화 시대 개막에 큰 획을 긋고 새 출발하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아름다운 나무, 소나무 숲에 무서운 재선충이 발생되어 동해안 일대까지 확산되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며 시급히 방제대책이 강구되어 기필코 정복하고 넘어야 할 과제로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묘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종자와 좋은 묘목이 산림사업 백년대계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원칙 밑에 우리 모두 충실했는지에 대하여 차제에 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양묘작업 추진면에서 보면 지난 한두해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양묘사업 자체가 3D 업종으로 간주되어 작업인부 확보 문제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고 묘목생산원가의 60% 이상이 인건비인데 비하여 매년 현장 노임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등 작업여건이 몹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1단계로 우량종자와 묘목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종묘 국가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종자산지증명

등 우량종자 공급정책 면에서는 확고히 자리를 잡은 성과를 올렸으나 묘목 생산 작업 과정에서는 일부 양묘시설 부족과 양묘기술 미숙 등으로 최상의 묘목을 생산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양적인 조림과 양적인 양묘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해가 갈수록 제한적인 조림면적, 많지 않은 묘목생산량 등으로 바야흐로 성과 있는 조림, 고급조림을 추진해야할 변화하는 새 시대 앞에 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우리 양묘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잡고 치산녹화의 동반자로서 자부심과, 오직 우량종묘생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난 45년간의 양묘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중요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림용 종자유통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종자) - (묘목) - (식재)」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과정별로 책임 확인제를 실시함으로써 출처가 확실한 종자관리, 형질우량묘목의 생산 수급, 그리고 성과있는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 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의 성취를 위하여 노지묘 위주에서 간이온실을 이용한 용기묘 생산, 소묘 위주에서 대묘생산 위주의 양묘를 추진하며 새로운 양묘기술을 개발하고 기준생산량을 잘 지켜 나감으로써 형질우량묘목을 생산하는 과학적인 양묘사업을 추진하여 양묘가족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협회의 오랜 숙원이던 종묘전시판매장이 완공되어 새로운 「양묘협회」 시대가 문을 여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묘가족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05년 12월

한국양묘협회장 이 상 복